

해외로 전파된 《금고기관》*

- 19세기 영역본 고찰 -

김 소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미스 왕교란의 끝없는 원한》, 1839년 |
| II. 《다정한 한 쌍, 송금 전기》, 1820년 | IV. 《보석함》, 1872년 |
| | V. 맺음말 |

I. 들어가며

《금고기관(今古奇觀)》은 포옹노인(抱擁老人)이 편찬한 삼언이박(三言二拍)의 선집(選集)으로 명나라 말기에 간행된 이래¹⁾ 청나라와 민국초기 동안 약 80여종의 판본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었다.²⁾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군보한루간본(吳郡寶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203659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 《금고기관》의 간행년도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명나라 승정년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가 간행된 승정 5년(1632)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1632년에서 1644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2) 中島長文 編, 《中國小說史略考證》著録編, 2013, 215-217쪽 참조.
file:///C:/Users/lenovo/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0G/NZFP00/nakajima001.pdf 2020년 3월 8일 검색.

樓刊本)으로 80쪽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편찬자 포옹노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학계에서 정론이 내려져 있지 않는데, 일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초보적인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 설이 있다. 먼저, 강소(江蘇) 제2사범대학 펑바오산(馮保善) 교수에 따르면, 《금고기관》이 청나라 초기에 와서야 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포옹노인은 명나라 유민이자 시인 고유효(顧有孝, 1619~1689)일 것으로 추정한다.³⁾ 두 번째, 화중(華中)사범대학 리청(李程) 교수에 따르면, 삼언의 편찬자 풍몽룡과 이박의 편찬자 능몽초와 교유했던 문학가이자 화가였던 진계유(陳繼儒, 1558~1639)일 것으로 추정한다.⁴⁾ 세 번째, 일본 사이타마대학(埼玉大學) 오즈카 히데타카(大塚秀高) 교수에 따르면, 포옹노인은 능몽초이고 수정자(手定者) 묵감재(墨愍齋)는 풍몽룡이며 두 사람이 함께 삼언이박의 선본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⁵⁾ 포옹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진전된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여하튼 삼언이박에서 명나라 시대에 창작된 고사를 중심으로 골라냈다는 사실에 근거해 봤을 때 포옹노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려 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금고기관》의 중국문학사적 의의와 가치는 일찍이 민국시기부터 인정받아왔다. 민국시기 고전소설연구자 쑤카이디(孫楷第, 1898~1986)는 말하길, “책 전체를 살펴볼진대 취사선별의 안목이 훌륭하다. 비록 송원시대 사람들의 작품은 없으나 명나라 사람들의 좋은 단편소설은 거의 다 망라하고 있으니 훌륭한 단편소설총집으로서 손색이 없다.”⁷⁾ 문학사가(文學史家) 정전퇴(鄭

3) 馮保善, <《今古奇觀》輯者抱甕老人考>, 《文學遺產》 第5期, 1988.

4) 李程, <《今古奇觀》編輯者“抱甕老人”續考>, 《明清小說研究》 第3期 總第93期, 2009.

5) 大塚秀高, <抱甕老人と三言二拍の原刻本について>, 《日本アジア研究》 13권, 2016.

6) 《유세명언(喻世明言)》에서 8편, 《경세통언(警世通言)》에서 10편, 《성세항언(醒世恒言)》에서 11편, 《박안경기(拍案驚奇)》에서 3편,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에서 8편을 가져왔다.

7) “統觀全書, 去取眼光大致不錯. 雖然宋元人著作沒有, 明人好的短篇小說差不多都網羅在內, 所以仍不失爲好的短篇小說總集.” 孫楷第, <重印《今古奇觀》序>.

振鐸, 1898~1958) 역시 주장하길, “가장 널리 유행하고 독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으며 실제로 평화의 끊어질 듯 말듯 한 명맥을 이은 것은 《금고기관》 하나 밖에 없다. 《금고기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그 명성은 《삼국연의》, 《수호전》, 《홍루몽》 등 거작과 나란히 드러나고 함께 전해졌다. …… 학인들이 《금고기관》 외에 삼언, 이박 그리고 《경본통속소설》 등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겨우 최근 10여년 이래의 일이다. 그 이전 이삼백 년 동안에는 《금고기관》이 평화집 가운데 유일하게 전해지는 아이라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다.”⁸⁾ 삼언이박은 청나라에 오면서 금서로 지정된 반면 《금고기관》은 계속 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인접국가 조선과 일본은 물론 멀리 유럽에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 조선에 전파된 시기는 늦어도 1762년 이전이며,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소장본만 해도 무려 5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많다. 국내소장본 가운데 대부분이 1900년대 초기 상하이에서 출판된 판본이라는 사실로 보아,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한반도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약 20여 편이 번역된 이후 1910년대에는 번안된 고사가 8편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 4종의 번역본이 더 출간되었는데, 아쉽게도 모두 일부고사만 발췌해서 번역한 부분번역으로 완역본은 아직까지 없다.⁹⁾ 일본에는 1731

《滄州後集》, 中華書局, 1985, 50쪽.

- 8) “流行最廣, 最爲讀者所知, 且在實際上是延著平話不絕一縷的命脈者, 只有《今古奇觀》一書罷了. 說起《今古奇觀》來, 差不多沒有一個人不知道. 其盛名是與《三國》、《水滸》、《紅樓夢》諸巨作並著同傳的. ……學人們知道《今古奇觀》以外更有‘三言’、‘二拍’以及《京本通俗小說》諸書者, 只是最近十年來之事. 在以前二三百海里, 《今古奇觀》可以大膽的說是平話集中的獨傳的兒子.” 鄭振鐸, 〈明清二代의 平話集(上)〉, 《鄭振鐸全集》 第4卷, 華山文藝出版社, 1998, 396-397쪽.
- 9) 鄭榮豪, 閱寬東, 〈중국 백화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三言》·《二拍》·《一型》 및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第54輯, 2013, 228, 235-239, 242쪽 참조. ; 장노현, 〈근대전환기 중국 매개 번역문학의 현황과 양상〉, 《국제어문》 제56집, 2012, 335쪽 참조.

년 이전에 상선을 통해 유입되어¹⁰⁾ 에도(江戶)시대 문학에 영향을 주었으며¹¹⁾ 1814년부터 일본어로의 번역이 시도되었고 완역본은 1958년에 나왔다.¹²⁾ 한편, 유럽인에게 최초로 알려진 계기는 1735년 불역본을 통해서였고, 이후로 영어번역이 나오면서 그 전파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국내학계는 《금고기관》의 한국으로의 수용과 전파에 한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그것의 글로벌 전파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¹³⁾ 《금고기관》은 일찍부터 중국인들만 읽는 소설이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읽는 소설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영어권으로의 전파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삼언이박이 서양에 소개되기 훨씬 이전부터 《금고기관》은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대표작으로 서양에 널리 알려졌고, 《금고기관》의 고사는 1741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된¹⁴⁾ 이래 19~20세기 동안 약 8종의 영역본이 나왔다. 물론 완역본은 아니고 모두 일부 고사만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삼언이박이 아니라 《금고기관》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번역가가 서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19세기에

10) 汪俊文, 《日本江戸時代讀本小説與中國古代小説》, 上海師範大學 博士論文, 2009, 150쪽.

11) 슈지츠대학(就夷大學)의 마루이 타카시(丸井貴史) 교수에 의해 《금고기관》과 에도문학의 구체적인 영향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丸井貴史, 《白話小説の時代—日本近世中期文學の研究》, 汲古書院, 2019 참조.

12) 1814년 淡齋主人이 《今古奇觀》의 3편 고사를 골라 일본어로 번역한 《通俗古今奇觀》이 출간되었다.

13) 김연호, <<今古奇觀>의 번역양상-고대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7권, 1987; 김영화, <韓國·日本の 明代 白話短篇小説 翻譯·翻案 樣相: 三言·二拍과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민관동, 김명신, <朝鮮時代 中國 古典小説의 出版本과 翻譯本 研究>, 학교방, 2013; 민관동, <中國 通俗小説의 유입과 수용>, 학교방, 2014.

14) 1741년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고사는 불역본을 저본으로 한 간접 번역이었다. <장자휴가 질그릇을 두드리며 대도를 깨우치다(莊子休鼓盆成大道)>, <여대랑이 주운 돈을 되돌려주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다(呂大郎還金完骨肉)>, <사적 원한을 품은 악한 하인이 주인을 고소하다(懷私怨狠僕告主)>등 3편으로 모두 예수회 선교사 뒤 알데(Du Halde)가 편찬한 《중국사》의 영역본에 수록되었다.

출판된 3종의 영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번역의 맥락, 동기, 방법, 특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금고기관》이 19세기 서양에서 누렸던 인기와 명성을 재현함으로써 그것의 연구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II. 《다정한 한 쌍, 송금 전기》, 1820년

《금고기관》의 고사가 영어로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1820년이 최초이다. 영국인 피터 페링 톰스(Peter Perring Thoms, 1791~1855)가 《금고기관》에 수록된 14번째 고사 〈송금랑은 구멍 난 전립(甌笠)으로 헤어진 아내와 다시 만나다(宋金郎團圓破甌笠)〉를 번역한 《다정한 한 쌍, 송금 전기(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로, 런던의 링컨스-인-필드코스(Lincoln's-Inn-Fields)에 위치한 콕스 앤 베일리스(Cox and Baylis)에서 인쇄하고 BKPA(Black, Kingsbury, Parbury, Allen) 출판사가 판권을 가졌다. BKPA는 19세기 초기 영국 식민지의 책과 번역물을 출판하는 주요 출판사였다. 번역가 톰스는 1814년 런던에서 유럽식 인쇄기와 인쇄 재료 등을 마카오로 가져와 동인도회사의 인쇄공과 통역가로 일하면서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이 《중국어사전》을 편찬하는데 협력했다. 1825년까지 11년 동안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톰스는 중국의 활판인쇄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문학의 번역과 중국전통화병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그는 윌리엄 밀튼(William Milne, 1785~1822)이 말라카에서 간행한 계간 《인지수문(印支搜聞, The Indo-Chinese Gleaner)》으로부터 중국풍습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언어문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모리슨의 사전 및 저작을 참고로 해서 1818년에 번역을 완성했다. 10권으로 된 《금고기관》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했다. 이 고사는 하층민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다지 중요한 주제는 내포하

고 있지 않지만 중국인의 관습과 예의범절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번역가 톰스는 서문에서 밝혔다. 특히 이 고사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강남지방의 종교관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유럽인의 종교관과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고사는 중국인들도 박애, 연민, 사랑 등의 고결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9세기 프랑스의 뛰어난 중국학자 스타니슬라스 줄리앙(Stanislas Julien, 1797~1873)이 번역한 청대 재자가인소설 《청평냉연(平山冷燕)》의 불역본 서문을 참조하면, “그 당시 서양인은 중국이라는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지만 정작 서양상인과 선교사들이 중국사회의 내부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오로지 소설을 통해서만 중국인의 가족생활과 개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로써 문인학사의 분투와 어렵게 공부하는 과정, 귀부인과 아씨들의 생활과 언행 등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¹⁵⁾ 그리하여 이 고사를 번역할 때 톰스는 절에서 올리는 기복(祈福) 의식, 중국인의 혼례, 불교의 계율 등에 관해 주석을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영역본에 달린 26개의 주석은 모두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서양인 독자를 위해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이 고사에서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송돈이 절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면서 불전 앞에서 향과 초, 신마(神馬)가 그려진 종이 등을 태운다. 이 때 톰스는 주석을 활용하여 이러한 관습은 진시황의 순장(殉葬) 이후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뒤, 중국인들은 장례식에서 종이로 만든 사람, 집, 배, 옷 등을 태워서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쓰도록 했다고 설명하였다.¹⁶⁾ 그리고 송금이 의춘과 결혼할 때 관을 쓰는 의식에서도 주석을 통해 중국인의 혼례를 상세히 소개했으며,¹⁷⁾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도 살생, 약탈, 음탕한

15) “Préface”, *P'ing-chan-ling-yen, ou Les deux jeunes filles letties*, traduit par Stanislas Julien, Librairie Didier et Cie, 1860.

16) *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 trans. by P. P. Thoms, BKPA, 1820, 9-10쪽.

행동, 거짓말, 음주 금지 등이 있다고 주석에서 설명했다.¹⁸⁾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절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중심사상을 한층 부각시켰다. 유유재가 사위 송금을 외딴 섬에 버렸을 때, 의춘은 “송금이 되돌아올 수 있기를 하늘과 땅에 빌었다”¹⁹⁾는 문장을 첨가했으며, 송금이 남경에 정착한 지 2년 동안 의춘의 고결한 성품을 잊지 못하여 재혼하지 않았다는 서술도 첨가함으로써 의춘의 수절의지를 강조하였다.²⁰⁾

한편, 톰스는 이야기꾼의 저본인 화본에서 기원한 독특한 서사기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²¹⁾ 그는 화본소설의 상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却說”, “且說”, “話分兩頭” 등 이야기꾼의 화법은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었다. 일례로, 중국원전에서는 송금이 보물상자를 과주(瓜州)로 운반해 준 선원들에게 보답으로 보물상자 1개를 주자 그들은 상자를 열어 나누어 가졌다고 한 뒤,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하기 위해 여기서 이만 줄인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톰스는 원전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게 번역했다.

중국원문 : “衆人自去開箱分用. 不在話下.”(사람들은 직접 가서 상자를 열어 나누어 가졌다. 여기서 이만 줄인다.)

톰스의 영역 : “They all assisted to open it without saying a word, and divided the contents among themselves”²²⁾(그들은 모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보물을 나누어가졌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금이 과주에서 남경으로 간 이후의 새로운 이야기를 서술하기 위해 서술자가 사용한 “不在話下(여기서 이만 줄인다)”의 화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톰스는 선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물상자를

17) 같은 책, 44-45쪽.

18) 같은 책, 55쪽.

19) “called on heaven and earth to bring back her dear Sung.” 같은 책, 67-69쪽.

20) trans. by P. P. Thoms, 앞의 책, 85쪽.

21) 같은 책, 67쪽.

22) 같은 책, 63쪽.

여는 것을 도왔다”고 오역하고 말했다.

이렇듯 화본소설의 서사특징은 약화된 반면, 번역가가 4개의 챕터로 분리함으로써 이 고사는 서양근대소설의 4단계 구성 즉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갖춘 이야기로 변모했다. 1장은 발단부분으로 송돈이 절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가난하게 죽은 승려를 위해 관을 시주한 뒤 아들을 얻는다. 송돈의 아들로 태어난 송금은 불행하게도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생 끝에 유유재의 사위가 된다. 그런데 어린 딸의 갑작스런 병사로 인한 충격으로 송금은 결핵에 걸리고, 장인어른에 의해 외딴 곳에 버려진다. 다행히 어떤 스님을 만나 《금강경》을 받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병이 쾌차하는 과정까지가 1장의 내용이다. 2장은 전개부분으로 외딴 곳에 버려진 송금이 도적떼가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여 배 선원들에게 부탁하여 그것을 남경으로 운반해가서 큰 집을 짓고 부자가 된다. 3장은 절정부분으로 남편과 헤어진 의춘이 부모님의 재가 권유에 맞서 수절의지를 드러낸다. 4장은 결말부분으로 송금이 의춘을 찾아와 다시 부부가 결합하는 내용이다. 중국 원전에 없는 4단계 구성을 무리하게 적용한 탓에 1장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기형적이다. 사실, 송금의 아버지 송돈이 아들을 낳게 되는 도입부는 이 고사의 입화에 해당하는데, 입화(入話)와 정화(正話)로 이루어진 화본소설의 서사구조를 톰스가 이해하지 못한 결과 1장의 내용이 비대해진 것이다.

이밖에 또 번역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원문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곳이다. 중국원문에서 송돈은 낭랑묘에 가서 자식을 접지해주길 기도했는데, 톰스의 영역본에서는 자신의 죄를 기도하기 위해 갔다고 변경되어 있다.²³⁾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송돈의 기도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번역가에 의해 원죄의식을 지닌 인간이 신 앞에서 용서를 비는 기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삭제한 부분은, 외딴 곳에 버려진 송금에게 나타난 스님이 장인어른을 원망하느냐고 묻자 송금은 자신의 운명이 박복해서 버려진

23) 같은 책, 17쪽.

것일 뿐이라고 말한 대목이다.²⁴⁾ 여기서 중국민중의 숙명관은 서양인 번역가 톰스에 의해 거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톰스의 번역이 나온 지 2년 뒤, 1822년에 이 책에 대한 리뷰가 영국동인도공사가 런던에서 창간한 월간지 《아시아 저널(Asiatic Journal)》에 실렸다. 이 리뷰는 톰스의 번역이 그 당시 서양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관해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리뷰는 이 고사가 지닌 도덕적 메시지 즉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강조하면서, 여주인공 의춘이 부모님의 설득에도 결코 수절의 의지를 꺾지 않는 장면은 자연스러운 필법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칭송했다. 특히 서양 작가가 미망인을 묘사한 것과 대조하면서 평하길, 야수적인 페트로니우스(Petronius)가 그린 에페수스의 과부나 부도덕한 볼테르가 이야기한 바빌론의 미망인은 모두 충격적인 풍자인데 반해 중국작가는 자연스럽게 묘사해내었다. 그래서 젊은 미모의 중국미망인들은 틀림없이 의춘처럼 행동하고, 슬픔과 고독에 빠져 폐결핵으로 죽거나 종적을 감춘 남편을 향한 절개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또 결말 부분에 나타난 유머에 대해서도 극찬했다. 유유재가 갈 곳 없는 고아 송금을 자신의 배로 데려와 일꾼으로 쓸 때 호통 쳤던 말을 부자가 된 송금이 유유재의 배에 찾아와 하인들에게 호통 칠 때 똑같이 말한다. “내 식량을 먹고 내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다니, 새끼줄을 꼬든지 밧줄을 만들든지 물건을 정리하든지 하지 왜 앉아서 놀고 있느냐?” 이 대목에서 톰스는 너무 우스워서 계속 읽어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이 고사의 해학성을 강조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유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유머 방식을 동원하여 중국작가는 교육받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도덕적 교훈을 전달한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송금이 유유재의 배에 타서 구멍 난 전립을 빌려 달라는 장면에서 송금과 의춘이 주고받는 시적 창화가 조성하는 중국적 미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뷰는 도덕적인 교

24) 같은 책, 54쪽에 보면 송금의 대사에서 중국원문 “小生命薄所致”가 번역되어 있지 않다.

훈을 띤 유머러스한 가벼운 이야기로 이 고사를 소개했다. 이 리뷰는 1823년 4월에 《갈리냐니 매거진, 파리 월간 리뷰(Galignani's magazine and Paris monthly review)》 제13권4호에 다시 전재(轉載)되었다. 파리잡지에 실린 리뷰 덕분인지 톰스의 영역본은 1827년 프랑스 중국학자 아벨 레뮈자(Abel Rémusat, 1788~1832)에 의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중국 이야기(Contes chinois)》 제1권에 수록되어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Ⅲ. 《미스 왕교란의 끝없는 원한》, 1839년

두 번째 번역본은 흥미롭게도 영국이 아닌 중국 광둥에서 출판되었다. 제목은 《미스 왕교란의 끝없는 원한(Wang Keaou Lwan pih nëen chang hăn, or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으로, 영국인 슬로스(Sloth)가 번역하여 1839년 동인도회사가 설립한 광둥출판국(Canton Press Office)에서 간행되었다. 번역저본은 12권으로 된 《금고기관》의 11번째 고사 〈왕교란의 백 년의 오랜 원한(王嬌鸞百年長恨)〉이었다. 이 고사를 번역한 슬로스는 바로 로버트 톰(Robert Thom, 1807~1846)으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834년 2월에 중국으로 건너와 아편무역으로 유명했던 자딘 앤 매티슨(Jardine & Matheson, 중국명 怡和洋行) 회사에서 일했다. 영국이 1842년에 청 왕조와 남경조약을 체결할 때 톰은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 로버트 모리슨, 호레시오 넬슨 레이(Horatio Nelson Lay, 1833~1898) 등과 함께 중국어통역가로 참여했으며, 1844년에는 통상이 개방된 영파(寧波)로 가서 영국영사로 일하다가 1846년 9월 39세의 젊은 나이에 영파에서 사망했다. 사망하던 해에 그는 서양인을 위한 중국어교재 《정음촬요(正音撮要, The Chinese Speaker)》에 《홍루몽》의 제6회를 영어로 번역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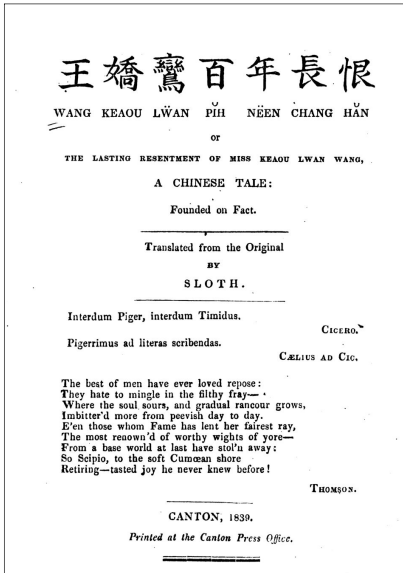
톰은 이 고사는 실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았으며, 글자 뜻 그대로 번역하는 직역 방식을 기본으로 하였고, 영어권 독자들에게 거

슬리는 부분에 한해서는 새로 고쳐 쓰거나 생략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²⁵⁾ 이렇게 편폭이 짧은 작품을 형식상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토로하면서, 반문언(demi-classic) 또는 혼종 문언(bastard classic)이라고 명명하는 게 적합하다고 용감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번역 동기에 대해서는 첫째, 플롯 전개 방식이 좋기 때문이고 둘째, 시가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시의 번역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그 어려움을 상세히 기술했다. 톰이 이 고사를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시를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광동의 중국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때는 아편전쟁 전야인 1830년대 후반으로, 중국문인과 관료계층은 침략을 일삼는 서양인을 적대시했으며 그들의 문화는 야만적이라 폄하했고 그들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톰이 접촉할 수 있는 중국인은 행공(行公)에 속한 중국상인, 행공에서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중국어교사, 매판, 콜리 등에 한정되었고, 이들은 중국문학에 대해 거의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공에서 서양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던 몽미서생(蒙昧書生)의 도움을 받아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는 《이습우화》의 번역가로 광동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한다.²⁶⁾ 왕교란 고사는 시사가 유난히 많이 삽입되어 있어서 톰은 애를 먹었고, 몽미서생에게 시의 뜻을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달라서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중국시는 읽는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몽미서생의 충고를 듣고 결국에는 자신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번역을 진행했다고 그 지난했던 번역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서문에서 밝혔다.

먼저, 속표지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제목 바로 아래에 적혀있는 3개의

25) 생략한 부분은 왕교란이 주정장과 혼인서약서를 쓰고 첫날밤을 치르고 난 다음날 자신의 감회를 적은 시를 생략했다. 번역가 톰은 서양의 점잔빼는 독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각주를 통해 생략 이유를 밝혔다.

26) 중국문인 몽미서생은 로버트 톰과 함께 이습우화의 중국어번역 《意拾喻言》을 출간하였다.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1839, 속표지.

의 《나태의 성》에서 인용한 시구인데, 더러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을 택한 왕교란에 대한 찬사로서 기능한다. 남자주인공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여자주인공에 대한 헌사로 기능하는 3개의 제사는 서양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 이 고사는 《금고기관》에 흔치 않은 비극으로, 여주인공 왕교란은 연인 주정장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남주인공 주정장 역시 자신의 배신에 대한 벌로 맞아 죽는다. 사건이 매우 흥미진진하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결말 부분에는 왕교란의 자살로 인해 비장미가 짙게 흐른다. 하지만 시사의 번역에 너무 진지하게 매달렸던 번역가 톰슨이 이 고사가 갖는 비극성에 대해서는 서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톰슨의 영역본에는 중국화가 그린 삽화 1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후원에서 놀던 왕교란이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운 주정장이 그것을 돌려달라는 하녀 명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으로 이 고사의 도입부에 해당한다. 이 영역본이 나온 지

제사(題詞)이다. 톰슨이 사용한 제사는 로마철학자 카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B.C.43)와 영국시인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 1700~1748)의 작품에서 가져왔다. 첫 번째 제사는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소심하게”, 두 번째는 “쓰는데 굉장히 게으르다”로 남자주인공 주정장이 왕교란을 배신할 때 취한 태도를 간명하게 알려준다. 고향으로 돌아간 주정장은 왕교란과의 결혼맹세를 어기고 부모님이 정해준 여인과 결혼한다. 그래서 왕교란의 편지에 그는 즉각 답장을 쓰지 못하고 미적거렸다. 세 번째 제사는 제임스 톰슨

7년 후 1846년에 독일 낭만파시인 아돌프 뵘트거(Adolph Böttger, 1815~1870)가 독일어로 번역하여 라이프치히에서 독일본을 출판하였다. 이처럼 톰의 영역본은 왕교란 고사가 독일어권으로 전파되는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했다.

톰은 중국원전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번역했으며 직역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적 어휘와 시의 번역에서는 의역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직역을 했을 때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의역을 한 뒤에 주석을 활용하여 직역을 덧붙였다. 예를 들면, “氷人”(혼인을 증명하는 사람)을 번역할 때 본문에서는 “go-between(중매인)”이라고 번역한 뒤 주석에서 “the man of ice(얼음 인간)”라고 직역을 첨부하는 방식이었다.²⁷⁾

톰의 영역본에서 가장 빛나는 점은 풍부한 각주와 미주이다. 그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국인의 관습과 예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왕교란이 후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주정장이 벽에 난 구멍으로 훑쳐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즉시 방으로 들어와 버린 대목에서 번역가는 주석을 활용하여 중국 소녀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중국에서는 아가씨가 남성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아가씨는 이성에 대해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유럽 소녀들처럼 주목받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설명했다.²⁸⁾ 그리고 주정장이 교란에게 접근하기 위해 왕부인과 자신은 같은 성씨이므로 조카와 이모의 친척관계가 성립된다는 꾀를 떠올린 부분에서 톰은 각주를 활용하여 중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설명했다.²⁹⁾ 아마도 이는 서양인에게 굉장히 중국적인 씨족문화로 비춰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부모님 몰래 조(曹)이모만 모셔와 비밀리에 혼인서약을 작성하는 장면을 보면, 4장을 작성

27) *Wang Keaou Lwan pih nën chang hăn, or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trans. by Sloth, Canton Press Office, 1839, 18쪽.

28) 같은 책, 10쪽.

29) 같은 책, 21쪽.

하여 2장은 교란과 정장이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갖고, 한 장은 조이모가 중매인의 자격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장은 하늘과 땅 앞에서 태워 귀신에게 결혼서약을 알리는 의식을 행한다. 혼인서약서를 태우는 의식은 신기한 중국인의 관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톰은 각주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중국인의 관습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또 鸞鳳(난조와 봉황)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부부간의 사랑의 상징이라고 각주에서 설명했다.³⁰⁾

각주에서는 짧은 설명을 가한 반면, 미주에서는 긴 설명을 첨가했다. 병든 아버지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는 정장에게 왕교란은 이별의 슬픔과 굳건한 사랑의 맹세를 담은 시를 건넨다. 이 시에서 자신은 “강녀(姜女)와 같은 절조를 지니고 굳게서는 민견(閔鵝)과 같이 강상(綱常)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톰은 미주를 활용하여 강녀와 민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중국 고사에서 유명한 강녀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춘추시기 초(楚)나라 소왕(昭王)의 부인이다. 어느 날 소왕은 기분전환을 하러 밖에 나가면서 부인을 물이 점점 불어나는 점대(漸臺)에 남겨 놓았다. 황제가 강녀와 함께 산책하길 바랄 때에는 전령을 통해 부신(符信)을 보낼 것이며, 부신이 없으면 그녀는 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은 이전에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날 강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것을 본 소왕은 그녀에게 그 곳을 즉시 떠나도록 지시하기 위해 하인을 보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익사하게 될 것이었다. 너무 다급했던 바람에 그는 부신을 보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전령에게 부신을 요구했는데, 그가 내놓지 못하자 황제의 옛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라 그 곳을 떠나길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점대에서 익사하고 말았다. 다른 한 명은 위(衛)나라 공백(共伯)의 아내(공강(共姜)—필자 주)이다. 남편이 일찍 죽자,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재가하도록 강요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절조를 지킬 것을 완강히 고집했다. 그리고 결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숙한 맹세를 담은 백주시(柏舟詩)를 지었다. 세 번째는 동한시대 관

30) 같은 책, 13쪽.

리 강시(姜詩)의 아내로 효심으로 유명했다. …… 한편, 민건은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로 지극한 효심으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란 민건은 온갖 학대를 받았다. 계모가 친아들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화가 나서 계모를 내쫓으려 하자 민건은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한 아들이 고통을 받지만, 아버님이 내쫓으면 두 아들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만류했다고 한다.”³¹⁾ 강녀와 민건에 대한 이렇듯 상세한 미주는 중국설화를 읽은 적이 없는 서양 독자들로서는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사무엘 벌치(Samuel Birch, 1813~1885)는 이 책에 대한 리뷰에서 긍정적으로 평했다. 뿐만 아니라, “삼혼(三魂)과 칠백(七魄)”에 대해서도 미주에서 설명하길, 혼은 양에 속하고 백은 음에 속하는데 왜 삼혼과 칠백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면서 로버트 모리슨의 《중국어사전(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의 제2부 《오차운부(五車韻府)》 제1권 《음절 사전(syllable dictionary)》을 참고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다.³²⁾

톰의 영역본이 나온 지 바로 이듬해 1840년 런던에서 출판된 문학 저널 《월간 리뷰(The Monthly Review)》 9월호에 리뷰가 실렸다. 이 고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진기한데, 소설로서의 장점은 물론 중국인의 생활, 관습, 소지품 등에 대한 빼어난 묘사와 훌륭한 사실성 때문에 다른 일반 소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했다. 이 고사를 통해 사랑의 열정, 변덕스러움, 신의 없음, 분노, 절망 등의 감정은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연령에서나 동일하며, 따라서 인간본성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기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과 관습에 대한 흥미로운 묘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번역가 톰이 야심차게 중국어를 번역했지만, 사실 독자로서는 이 고사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서양독자로서는 공감하기

31) 같은 책, 63-64쪽.

32) 같은 책, 65쪽.

어려웠고 시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왕 교란이 자살하기 직전에 쓴 장편의 〈장한가〉에 대해서는, 이 시를 통해 나타난 감정은 인류 보편적인 것이며 그 이미지는 대담하면서도 《아라비안나이트》와 같이 동양적이라고 평했다. 이 리뷰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 리뷰가 《해외 분기별 리뷰(Foreign Quarterly Review)》 1840년 10월 26권51호에 발표되었다.³³⁾ 리뷰의 필자는 영국의 동양학자 사무엘 벌치였으며, 그는 중국문학은 중국인의 감정과 관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이 책의 번역 가치를 강조했다. 그리고 번역가 톰이 앞으로도 광동출판사를 통해 계속해서 영국독자들을 위해 즐거움을 줄 수 있길 바라며, 로망스를 번역하기보다 중국인의 가정 예절과 관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작품을 번역해주길 당부했다. 이상의 리뷰를 통해 봤을 때, 사랑의 배신에 대한 도덕적 징계를 담은 왕교란 고사는 서양의 낭만적 로맨스와의 유사성 속에서 수용되었고, 중국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로 간주되었다.

IV. 《보석함》, 1872년

세 번째는 《금고기관》의 5번째 고사 〈두십낭이 분노하여 보석함을 강물에 던지다(杜十娘怒沉百宝箱)〉를 번역한 《보석함(The Casket of Gems)》으로 1872년 런던의 불사조 사무실(The Office of the Phoenix)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불사조》는 중국, 일본 및 동아시아 관련 월간지로 《보석함》을 출간하기 2년 전, 1870년 9월호에 이미 《금고기관》의 23번째 고사 〈장흥가가 진주적삼을 다시 만나다(蔣興哥重會珍珠衫)〉를 복주의 영국부영사로 일했던 찰스 캐럴(Charles Carroll, 1837~1876)이 번역해서 〈진주적삼(The Pearl Embroidered Garment)〉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바

33) 사무엘 벌치의 리뷰는 이듬해 1841년 독일잡지 《일반연극신문(Allgemeine Theaterzeitung)》 148호에 소개되었다.

있다. 《보석함》을 번역한 사무엘 벌치는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대영박물관에서 근무한 이집트연구자로 일찍이 1840년대에 《금고기관》의 20번째 장자휴(莊子休) 고사와 12번째 양각애(羊角哀) 고사를 번역하여 잡지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사무엘 벌치는 19세가 되던 1831년 런던 근교의 머천트 테일러학교(Merchant Taylors' School)를 졸업한 뒤 3년 동안 학식이 깊은 중국학자의 가르침 아래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였다. 1836년 대영박물관 고대유물부서에 조교로 일하게 된 이후로도 중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하면서 중국어 공부를 계속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이집트 상형문자 연구에 매진하였다. 1863년이 되어서야 그는 중국학연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보석함》은 이 시기에 번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철학자들의 학설보다 중국인민의 삶과 사유방식에 더욱 흥미가 있었던 벌치는 중국의 로맨틱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중국문학의 다른 장르들과 마찬가지로, 로맨틱소설 역시 비유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특별한 문구와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중국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중국 동전화폐 및 도장문자에도 관심이 많았고 중국고문자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다.³⁴⁾

벌치는 번역자 서문에서 《보석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 고사는 그리스의 고급 창부 헤타이라(Hetairai)에 해당하는 중국 여성계층에 대한 이야기로, 이들은 서구에서와는 다소 다른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에서 그녀들은 천재, 시인, 철학자들의 벗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할 뿐만 아니라 환락과 연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여성들은 고아이거나 유괴당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악명 높은 노파가 그녀들을 노예로 사와서 여러 가지 교양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마작 게임, 옛 시에 대한 품평, 비파와 거문고 연주, 고대 시인들이 지은 시부(詩賦) 음창 등의 기예를 섭렵했으며, 수도 베이징에는 이러한 재능을 지닌 욕정의 불행한 노

34) E. A. Wallis Budge, *Memoir of the late Samuel Birch, LL.D.*. Harrison and Sons, 1887, 3-20쪽, 42-43쪽 참조.

예들이 많았다. 《금고기관》의 다른 고사와 마찬가지로 이 고사의 형식과 서사 역시 단순하고 쉬우며,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그가 번역에 착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고사가 갖는 극도의 파토스 때문이었다고 밝혔는데, 아마도 그는 서양 비극과의 유사성 속에서 이 고사를 독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역사 및 전통과 관련된 부분은 어려워져 대략적으로 밖에 번역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면서 독자의 양해를 구했다. 벌치의 영역본 역시 독일어로 번역되었는데, 번역가 에드워드 그리세바흐(Eduard Grisebach, 1845~1906)는 ‘보석함’이라는 영역본의 제목 대신 중국원전의 제목대로 ‘두십냥이 분노하여 보석함을 강물에 던지다(Tu-schi-niang wirft entrüstet das Juwelenkästen in die Fluten)’로 고쳐서 《중국소설(Chinesische Novellen)》에 수록해서 1884년에 출판했다.

벌치 역시 중국원전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중국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관용어 또는 문화적 어휘조차도 글자 뜻 그대로 직역함으로써 등가적 의미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문①

중국원전: 那杜十娘自十三歲破瓜. (그 두십냥은 13세부터 처녀성을 잃었다.)

벌치의 영역: From the age of thirteen she had been a broken melon. (13세부터 그녀는 깨진 멜론이었다.)³⁵⁾

예문②

중국원전: 不覺一年有餘, 李公子囊篋漸漸空虛, 手不應心, 媽媽也就怠慢了.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 년이 훌쩍 지나면서 이공자의 주머니는 점점 비어갔고, (돈을 낼 여력이 없게 되자) 기생어멈도 태만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35) trans. by Samuel Birch, *The Casket of Gems*, The Office of the Phoenix, 1872, 5쪽.

벌치의 영역 : when about a year had elapsed Le-kea's purse had by degree been completely exhausted, and his hand did not correspond to his heart. The old woman then treated him ill. (일 년 정도 지나자 이갑의 지갑은 점점 완전히 텅텅 비어졌고, 그의 손은 그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파는 그를 불친절하게 대했다.)³⁶⁾

예문③

중국원전 : 他會說你笑你, 落得一場褻瀆, 自然安身不牢. (그녀(기생어멈—필자 주)가 당신을 닥하고 비웃으며 한바탕 모욕을 가하면 자연히 몸을 편안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벌치의 영역 : if when they have rated and ridiculed you, you should let fall any abuse, they will then decidedly throw you into prison.³⁷⁾ (만일 그들이 당신을 꾸짖고 비웃으면 당신은 분명 옥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분명 너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예문④

중국원전 : 別人家養的女兒便是搖錢樹(다른 사람들이 기른 딸은 요전수인데)

벌치의 영역 : for your wishing to drive away other persons is shaking the money tree. (네 바람 대로 다른 사람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돈 나무를 흔드는 것이다.)³⁸⁾

이상의 예문①에서는 “破瓜”를 “a broken melon”으로, 예문②에서는 “手不應心”을 “his hand did not correspond to his heart”로 번역함으로써 원전이 갖는 의미에 근접하지 못했다. 또 예문③에서는 속신 비유를 빌려 온 이갑에게 류우춘이 했던 충고에서 “安身不牢”의 관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牢”가 갖는 감옥이라는 글자 뜻에 얽매어 번역함으로써 “throw you into prison”라는 오역을 범하고 말았다. 예문④는 돈을 탕진한 이갑

36) 같은 책, 6쪽.

37) 같은 책, 12쪽.

38) 같은 책, 8쪽.

을 몰아내기 위해 기생어머니 두십냥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대목인데, “搖錢樹”도 글자 그대로 “shaking the money tree”라고 직역하여 원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전대의 번역가 톰스와 톰에 비해 벌치는 중국어어휘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오역을 범한 경우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문⑤

중국원전 : 父親李布政所生三兒, 惟甲居長. (부친 이포정이 낳은 세 아들 중에 갑이 장남이었다.)

벌치의 영역 : Of the three sons which his father Le-poo-ching had, Le-kea only survived to manhood.³⁹⁾ (아버지 리푸칭의 세 아들 가운데, 오직 리카만 성년 남자로 살아남았다.)

예문⑥

중국원전 : 教坊司院內, 與一個名姬相遇. 那名姬姓杜名嫩, 排行第十, 院中都稱爲杜十娘. (교방사원에서 한 명의 명기와 만나게 되었다. 그 명기의 성은 두이고 이름은 미이며, 향렬이 10번째이어서 원에서는 모두 두십냥이라고 불렀다.)

벌치의 영역 : In the court he met with a renowned courtesan, named Too-wei, and on account of her residing at No. 10 court she was called Too-shih-neang, i.e., Miss Ten Too. (궁정에서 그는 유명한 창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름은 두웨이로, 10호 기루에 산다는 이유로 그녀는 두스냥 즉 미스 텐 두라고 불렀다.)⁴⁰⁾

예문⑦

중국원전 : 若三日沒有銀時, 老身也不管三七二十一, 公子不公子, 一頓孤拐, 打那光棍出去. 那時莫怪老身! (만일 3일 만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노파는 앞뒤 가리지 않고, 공자이건 아니건 간에 발목 복사뼈를 때려

39) 같은 책, 4쪽.

40) 같은 책, 5쪽.

그 녀석을 쫓아낼 거야. 그 때 이 노파를 원망하지 마라.)

벌치의 영역 : “Should it not be forthcoming within three days, I’ll not stand reckoning three times seven are twenty-one, but young gentleman or not, will once for all cuff the kidnapper, and kick out that bare stick; don’t then be astonished at me.”⁴¹⁾ (3일 안에 준비하지 못하면, 나는 3곱하지 7은 21로 계산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 신사이건 아니건 최종적으로 그 유괴범을 때리고 벌거벗은 놈을 발로 찰 것이다. 그 때까지 나에게 놀라지 마라.)

이상의 예문⑤는 이갑이 이포정의 장남이라는 서술인데 “居長”을 “survived to manhood”로 오역했으며, 예문⑥은 두십낭이라는 이름의 내원을 서술한 대목인데 “排行”을 “her residing at No. 10 court”라고 오역했고, 예문⑦은 기생어머미 두십낭에게 3일 안에 속신비용을 마련해오지 못한다면 이갑을 내쫓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대사인데 “一頓孤拐”를 “will once for all cuff the kidnapper”로 원문의 뜻과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다. 어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중국역사인물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오역도 초래되었다. 사무엘 벌치는 백거이의 가기(歌妓) 번소(樊素)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唇似櫻桃, 何減白家樊素.”(입술은 복사꽃 같으니 어찌 백가네 번소보다 못하겠느냐)를 “her lips were like peaches when they screen the elevation and purity of a white house”(하얀 집의 고결함과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의 입술은 마치 복숭아 같았다)⁴²⁾라고 오역했다.

벌치의 영역본에는 각주가 없고 미주만 사용되었다. 일례로, 두십낭이 강물에 뛰어 든 직후에 삼입된 시에 언급된 “삼혼(三魂)”과 “칠혼(七魄)”에 대해 벌치는 미주를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속금병매(續金瓶梅)》 제1회의 구절을 인용하길, “삼혼은 바로 3개의 귀신으로, 하나는 음사(陰司)에서 벌을 받으며, 하나는 이 세상의 생명으로 다시 되돌아오며, 나머지 하나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다. 이 귀신은 좁쌀미

41) 같은 책, 8-9쪽.

42) 같은 책, 5쪽.

음을 먹으며 바람을 일으키고 떠나지 않고 붙어있으며 그 감정은 변화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살아 있을 때 혼백합일을 수련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⁴³⁾ 미주에서도 번역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설명이 발견되는데, 땅속 깊은 곳 죽은 사람의 넋이 돌아가는 구천(九泉)에 대한 설명에서 그는 세상을 떠난 영혼이 거주하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반대로 설명하고 말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벌치의 지나친 직역과 오역으로 인해 《보석함》은 중국원전의 면모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채 대체적인 줄거리와 인물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사무엘 벌치의 뛰어난 문학감상력과 안목 덕분에 《금고기관》을 대표하는 두십낭 고사가 최초로 영어로 번역될 수 있었던 점에서 이 번역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3종의 번역본은 모두 서양인 번역가에 의해 번역되었다. 중국인학자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번역을 주도하고 책임진 인물은 서양인이었다. 중국인들이 서양인과 서양문화에 대한 폄하적 시선과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갇혀 자국문학의 번역에 무관심하던 사이에, 중국문학은 서양인에 의해 이미 번역되고 있었다. 이들 3종 번역본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원전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 직접 번역으로, 중국원전을 존중하면서 글자그대로의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의역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물론 벌치의 번역에는 직역으로 인한 오역이 적지 않으나, 중국원전을 존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었다. 다시 말해,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양번역가들은 서양독자들의 취향에 맞추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원전을 바꾸어 쓰지 않았다. 하지

43) 같은 책, 44쪽.

만 화본소설이라는 중국소설의 독특한 장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그 서사적 특징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서양의 로망스, 비극과의 유사성 속에서 수용되었다. 사실, 서양번역가와 독자들은 문학적 관점에서 《금고기관》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보다, 중국인과 중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욱 강했다. 중국과의 교류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인들의 편하적 시선과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서양인들은 중국사회에 진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중국소설을 통해 중국사회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했던 특수한 상황에 《금고기관》의 19세기 영역본은 위치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장노현, 〈근대전환기 중국 매개 번역문학의 현황과 양상〉, 《국제어문》 제56집, 2012.
- 鄭榮豪, 閔寬東, 〈중국 백화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三言》·《二拍》·《一型》 및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第54輯, 2013.
- 抱擁老人, 《今古奇觀》, <https://zh.wikisource.org/zh/%E4%BB%8A%E5%8F%A4%E5%A5%87%E8%A7%80> 2020년 3월 8일 검색.
- 馮保善, 〈《今古奇觀》輯者抱擁老人考〉, 《文學遺產》 第5期, 1988.
- 李程, 〈《今古奇觀》編輯者“抱擁老人”續考〉, 《明清小說研究》 第3期 總第93期, 2009年.
- 孫楷第, 〈重印《今古奇觀》序〉, 《滄州後集》, 中華書局, 1985.
- 鄭振鐸, 〈明清二代的平話集 上〉, 《鄭振鐸全集》 第4卷, 華山文藝出版社, 1998.
- trans. by P. P. Thoms, *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 London: BKPA, 1820.

trans. by Sloth, *Wang Keaou Lwan pih nēen chang hǎn, or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Canton: Canton Press Office, 1839.

trans. by Samuel Birch, *The Casket of Gems*, London: The Office of the Phoenix, 1872.

E. A. Wallis Budge, *Memoir of the late Samuel Birch, LL.D.*. Harrison and Sons, 1887.

traduit par Stanislas Julien, *P'ing-chan-ling-yen, ou Les deux jeunes filles lettéés*, Paris: Librairie Didier et Cie, 1860.

大塚秀高, 〈抱甕老人と三言二拍の原刻本について〉, 《日本アジア研究》 Vol. 13, 2016.

中島長文 編, 《中國小説史略考證》 著録編, 2013, file:///C:/Users/lenovo/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0GNZFP00/nakajima001.pdf 2020년 3월 8일 검색.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propagation aspects of *Jin-ku-qi-guan*, or Wonders old and new in English-language zone. Using three translated text published in nineteenth century as a research subject, this will consider in detail the context, motivation, purpose and method of translated text.

The first translated text is *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 translated by P. P. Thoms, published at London BKPA in 1820. The second text is *Wang Keaou Lwan pih nēen chang hǎn, or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translated by Sloth, published at Canton Press Office in 1839. The third text is *The Casket*

of Gems translated by Samuel Birch, published at The Office of the Phoenix in London in 1872. All of these three translated text were direct translations of the Chinese text. Respecting the Chinese source text, the literal translation method was used as the principle. But due to cultural differences, semantic translation sometimes also was taken. Starting with a desire to learn and understand Chinese life and culture, Western translators did not alter the Chinese source text to suit Western readers' tastes or to improve readability.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unique narrative of Chinese novels, its narrative features were not well carried. Thus these text was accepted in the similarity with Romance and tragedy of the West. In fact, Western translators and readers had a stronger purpose of using it as a means of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hinese people and Chinese culture.

Key Words : 19세기(Nineteenth Century), 금고기관(Wonders Old and New), 영어번역본(Translated into English Text), 수용(Reception), 번역(Translation), 피터 페링 톰스(Peter Perring Thoms), 로버트 톰(Robert Thom), 사무엘 벌치(Samuel Birch).

